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한 도리스 레싱 아웃사이더의 냉정한 시선 지닌 타고난 이야기꾼

글_최미양(숭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사진 제공_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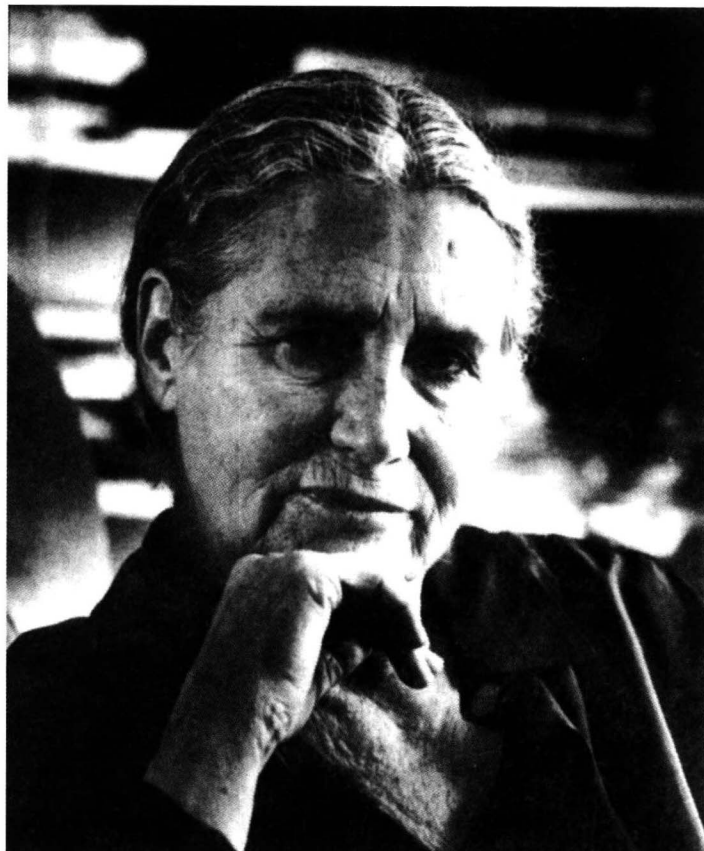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도리스 레싱(Doris May Lessing, 1919년~)은 한마디로 아웃사이더 같은 작가이다. 부모는 영국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아프리카에서 성장했으며, 두 번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웠고, 한때 공산주의자였으며, 수피즘의 영향을 받는 등의 이력은 아웃사이더로서 그녀의 면모를 말해준다. 아웃사이더의 냉정한 시선으로 레싱은 서구 문명을 예리하게 비판해왔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SF 소설 형식을 띤 연작물 《아르고스의 카노푸스: 기록문서》(*Canopus in Argos: Archives*, 1979~1983)에서 핵무기로 인한 인류 문명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간 의식의 발전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성(性)과 결혼을 둘러싼 여성의 삶의 문제를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려내고 있다.

레싱의 성공적인 데뷔작 《풀잎은 노래한다》(*The Grass Singing*, 1950)는 영국의 지배 아래 있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농장의 원주민 하인과 눈이 맞은 백인 부인이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미 살인은 벌어졌고 살인자를 추적하면서 주인공의 과거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살인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독자들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게 된다. 한편 레싱의 작품 세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인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5부작으로 구성된 《폭력의 자손들》(*The Children of Violence*, 1952~1969)은 한 여성의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권인 《마썸 퀘스트》(*Martha Quest*, 1952)는 주인공 마썸의 15살부터 결혼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있다. 지적으로 우수하지만 여성이라는 사회적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마썸이 부모로 대변되는 기존 가치에 저항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결혼을 선택하는 점이 앞으로의 문제를 예고한다.

레싱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황금빛 노트》(*The Golden Notebook*, 1962)는 다양한 주제와 실험적 형식으로 눈길을 끈다. 여주인공 에나는 작가, 공산당원, 기혼자의 연인이며 이혼한 싱글 맘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정체성들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못하면서 혼란을 겪고 결국에는 신경증에 빠진다. 이러한 정신적 파국을 극복하고 그녀가 새로이 확립한 정체성은 인간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를 두는 '상호의존적' 자아이다.

《다섯째 아이》(*The Fifth Child*, 1987)에 등장하는 성실하고 보수적인



두 남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대저택에서 아이를 네 명 낳을 때까지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했다. 아이들은 행복에 대한 부부의 욕구를,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를 상징한다. 그런데 괴상하게 생긴 다섯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들의 행복은 깨어져간다. 그 아이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악의 현신을 의미한다. 타고난 이야기꾼답게 레싱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을 박진감 있는 전개와 날카로운 묘사로 이끌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사로잡는다.

좋은 작품을 접할 때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순수한 희열을 맛본다. 그런 순수한 희열의 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개인에 따라 좋은 작품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탁월한 관찰과 통찰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레싱의 글이 좋은 작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민음사**